

학생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삼기위하여 산업체부설 학교를 가진 한 공장의 여성근로자 883명을 대상으로 1986년 7월 18일~1986년 7월 31일 동안 영양실태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1. 학생근로자의 평균 신장은 20세까지는 표준치에 0.6~2.2cm미달이고 체중은 표준치보다 0.3~2kg 많았다. 체중 부족 위험역에 속하는 학생이 3.3%, 요주의역이 7.2%, 비만 위험역에 속하는 사람이 2.3% 이고 87.2%가 표준치 영역이었다.

2. 학생근로자의 평균 Hb 량은 12.2 ± 1.0 이었고, Hct 치는 36.6 ± 3.2 이었으며, 혈색소량을 기준으로 한 빈혈빈도는 34.3% 이었다.

3. 총 섭취 식품군 중에서 동물성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8% 이었고, 단백질의 동물성, 식물성 비율은 24.2%, 75.8% 이었다. 당질, 단백질, 지방의 에너지 비율은 68:14:18이었다. 영양소 별로는 열량, 칼슘, 철분이 권장량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, 나머지 영양소들은 권장량을 초과하고 있었다.

산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교육활동에 관한 조사연구

한국보건간호학회지, 제2권 제2호, 1988.

정혜란

본 연구는 각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교육활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, 서울·경기지역에 있는 사업체중 간호원 자격을 가진 건강관리 보건담당자로 고용하고 있는 136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. 각 사업장에 간호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1부를,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를 10부씩을 87년 3월 2일에 운송하여 87년 4월 20일까지 회수하였다. 회수된 설문지는 각각 87부, 634부였으나 이 가운데 내용이 부실한 7부, 16부를 제외한 80부, 618부만을 연구에 이용하였다.

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1. 각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교육활동

1) 산업안전보건요원중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는 67.6%, 보건관리자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는 18.8% 였다.

2) 연간안전보건교육계획안을 작성하는 사업체는 52개 업체(65.0%)이며, 작성자의 60.0%가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였다.

3) 일반안전 및 보건교육은 22.5%가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았으며, 매년 12시간이

상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조사대상 사업장의 27.5%였다.

4) 일반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한 사업체는 38개 업체(47.5%)였다.

2.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교육경험을

1) 신규채용시 안전 및 보건교육경험율을 내용별로 볼 때, 생산기능직 근로자의 64.2%가 기계·기구의 위험성 및 취급방법을 교육받았고 원재료의 유해성 및 취급방법에 대한 교육경험율은 42.2%였다.

2) 생산기능직 근로자중 작업내용변경시 교육경험율은 63.6%였다.

3) 특별안전 및 보건교육경험율은 74.8%였다.

4) 일반안전 및 보건교육경험율을 내용별로 보면 신체검사 전후교육경험율이 사무관리직 근로자는 47.2%, 생산기능직 근로자는 50.0%로 다른 내용에 비해 교육경험율이 가장 높았다.

3. 안전 및 보건교육의 실시가 부진한 이유는 첫째가 건강관리보건담당자(간호원)의 지식과 경험부족 및 타 산업안전보건요원과의 협력부족, 두번째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교육에 대한 낮은 요구도 때문으로 나타났다.

4. 조사대상 근로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내용을 보면, 첫째가 신체검사 전후교육, 두번째가 안전사고 예방, 그 다음이 건강관리와 성교육 및 가족계획 순이었다.

산업보건의 발전과정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집중하는 초기단계, 일차대전후 위생공학의 발전과 아울러 공업중독과 직업병 예방에 직업적성, 인간관계를 포함한 산업심리 및 성인병 관리를 포함한 노년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산업정신위생에 관한 과제들이 문제로 대두되는 제3단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,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사업장의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사업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가 있다.

초기단계에 있는 산업안전 및 보건교육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, 정부의 계속적인 홍보 및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전문산업안전보건요원의 양성, 그리고 근로자들 스스로가 작업환경과 작업조건등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알고 개선하려는 주체적인 노력이 가장 필요하며, 사업주는 이윤추구의 원천이 근로자이므로 이들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하여야겠다.

포항지역 공장근로자의 간흡충감염 의식 조사